

## 대련(大連) 성포(星浦)

요 며칠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만주에 갔다가, 대련(大連)에서 6년 만에 바다를 보았다. 바다는 역시 언제나 푸르렀다. 그 위에 포기포기 하얀 물결이 피었다. 멀거니 멀리 아물거리는 수평선 저쪽만 바라다 보고 있던 나는 학생들의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학생들이 만주인 선부들과 배삯을 흥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람이 있으니, 배를 타지 못하도록 하여야겠다」 생각하였으나, 김고 주름잡힌 늙은 선부들의 핏줄 선 팔뚝이 믿음직스러웠고, 또 까닭없이 그저 고독해 보고 싶어서 모르는 체 돌아서 저편 낭떠러지를 향하여 조약돌을 밟으며 걸어갔다.

조약돌이 혹은 둥글둥글 혹은 납작납작 한없이 아름다웠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주워서 하나하나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윽고 낭떠러지까지 다달아 다시 그 낭떠러지를 끼고 바다 가운데로 자꾸만 걸었다. 걷다가 길이 막힌 곳에 바위가 하나 있어 나는 그 바위에 올라 앉았다. 그저 공연히 외롭고, 슬프고, 안타깝고, 쓸쓸하였다. 호주머니에서 조약돌을 내어서 만져보고 뺨에다 대어보고 하였다. 바다의 이야기마다 그 속에 담긴 듯, 파도소리가 그 속에 어리인 듯, 미역 내음새가 그 속에 어리인 듯, 끝없이 그 조약돌이 정다웠다. \*

그러던 중 내 가슴 속에는 무슨 느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인 아닌 나임에, 그 느낌이 말이 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지용의 「바다는 뿔뿔이 달아날려고 했다」, 이 시구가 생각났다. 그리고는 연달아 「고래가 이제 횡단한 뒤 해협이 천막처럼 펠럭이오, 「미역 잎새 향기한 바위틈에 진달래꽃 별조개 햇살 쪼이고, 「외로운 마음이 하루 종일 두고 바다를 불러, 「어딘지 홀로 떨어진 이름모를 서러움이 하나, 「바둑돌은 내 손아귀에 만져지는 것이 꺾은 좋은가 보아, 「바둑돌의 마음과 이내 심사는 아무도 모를지라도, 이런 시구들이며, 바이런의 「Roel on, thouders and dork blue Ocean-roll?, 이런 시구들이 단편적으로 두서없이 입술을 새어나왔다.

그 아름다운 시들의 전편을 외우지 못함이 안타까운 바 아니었으나, 생각나는 그 시구들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외움만으로도 나는 완전히 행복했다. 이윽고 가까이 파도소리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우렁찬 합창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처럼 멀리 바다 가운데로 날아갔던 학생들 탄 배가 돌아오는 것이었다. 집합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손아귀에 들었던 조약돌을 바다 가운데로 내어던지고 일어났다. 그러나 내가 걸어갔던 길은 벌써 들물에 잠겨 버렸다.

이제 바닷물에 씻겨 패이고 혹은 불거진 절벽에 붙어서 기어 나오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 패인 자국과 불거진 모슬기란 결코 발디딤하고 손잡이 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사건이 있고야 말까보다」 하였다. 과연 그 낭떠러지를 다 돌아 나올 동안, 몇 번이나 물 속으로 떨어져 구두 속으로 물을 넣고, 양복까지 아랫도리를 적시고 하였다. 참말 자칫하면 사건이 있을 뻔했다.

거기서 우리는 단지 전차를 타고 성포(星浦)로 갔다. 성포는 뒤로는 조그만 언덕 위에 잘 정제된 공원을 등지고, 오른쪽에는 문화주택이며

요정이 즐비하고, 물렁우리에는 노호탄(老虎灘)과 달라, 장크며 범선 대신 보트가 매여 있고 아주 현대적 감각이 팽배하였다.

따라서 노호탄에서 맛보던 그런 조용하고 태고연한 맛을 얻을 수가 없었다. 파도가 아까 노호탄에서보다 더 높다. 그래, 그러함인지 보트를 타겠다는 학생이 없다. 학생의 욕구를 거절하는 때 맛보는 불쾌감을 맛보지 않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조약들을 즐기고 있던 중, 동료 한 분이 보트 타자 한다. 바닷가에서 자라난 분이라 배 짓는 데 자신이 상당하신 모양이다. 나는 그의 자신을 믿고 같이 보트에 올랐다. 그러나 막상 타고 보니, 들물인데다 파도가 제법 높아 은근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마 이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끄기 위하여였음이라. 「내 짚은 못해도 보트도 좁은 것고, 헤엄도 좁은 할 줄 알아. 이만한 바다에서는 죽지 않을 자신은 있지요」 이런 객적은 소리를 동료에게 던졌다. 동료는 나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다만 나를 바라보고 미소할 뿐, 보트를 열심히 바다 가운데로 향하여 저을 뿐이었다. 멀리 큰 바위덩이로 된 섬이 하나 보이는데, 아마 거기까지 저어갈 결심인 모양이다. 아까 그런 풍은 쳤지만, 나의 불안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고 점점 커질 뿐이다.

그래 태연히 동료에게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미소할 뿐 짓기만 한다. 그 미소에는 만만한 자신과, 적으나마 그 모험에서 맛보는 재미가 가득 담겨 있었다. 이제 그로 하여금 뱃머리를 돌리도록 하자면 「무서워 못견디겠으니, 인제 제발 뱃머리를 돌려 주시오」 이렇게 애원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아까 처놓은 풍이 있으니, 이는 차마 대장부 체면에 못할 노릇이었다. 이에 나는 이런 꾀를 내는 수밖에 없었다. 「여보, 저 섬까지야 언제 가겠소. 인제 집합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만 돌아갑시다. 학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

면 어찌하오.» 동료는 이 말에는 어찌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입맛을 찌쩍 다시면서 뱃머리를 돌려대었다. 그리고는 보트를 사장으로 끌어 올릴 때까지 「에이, 저 섬까지 가 보았더면 좋았을 걸!」 이렇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러나 나는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섬까지 갔더라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을는지도 모를걸!」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돌아오는 길에 전차 안에서 호주머니에 주워 넣었던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오늘 하루 아무 사건도 없었음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니 그때 내가 생명까지 잃어 버리지만 앓을 무슨 사건이 있었던들, 편집 선생의 「사건 있는 해변 풍경」이란 제목으로 글을 쓰라는 부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을, 분한 노릇이다.

(《조광》, 5권 8호, 1939. 8. 1)